

함글함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 : 15

359

2016.1.17

2016년 주님의교회 표어
그들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출 5:3)

오늘의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8-9)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2 | 특별새벽기도회 |
| 3 | 겨자씨 |
| 4 | 새교역자 소개 |
| 5 | 목회칼럼 |
| 6 | 알립니다 |

교회 일정

- | | |
|----------|--------------|
| 1/24(주일) | 제직수련회 |
| 1/27(수) | 공동의회(안건:예결산) |

발행인 : 박원호
편집인 : 배익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집 : 함글함글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
주님의교회



이렇게 긴 이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떠났는데 어느새 60여년. 애달픈 마음을 차가운 철책에 묶어놓았다. 겹겹이 매달린 우리의 소망은 간절한 바람이 되어 북으로 날아가리. 이제는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 - 임진각에서

담임목사 신년사

그들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출 5:3)

통일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2016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는 모든 생명들에게 새로움을 가져다주는 상징입니다. 그러기에 “밝아왔습니다.” 이는 생명의 본질적 상징이라고 말해야할 것입니다. 새해의 능력은 단지 하루가 달라졌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생명의 본질과 함께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명이

기에 소망을 버리지 않으며 더구나 생명에 대한 소망만은 버리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는 새로움을 가졌습니다. 통일에 대한 새로움입니다. 이는 “전혀”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새로운 것입니다. 오히려 낡은 것이라고 말함이 낫습니다. 하지만 통일에 대한 소망을 새로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새해가 주는 환

경적 요구와 함께, 지침(tiredness)에 대한 거부와 함께, 생명들의 강한 욕구와 함께, 믿음이 주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됨의 소망은 결코 혈통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하나 됨도 아닙니다. 믿음의 하나 됨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그들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 2면에 계속

특별새벽기도회

신년 새벽, 가족과 함께한 기도회



처음 이들은 고등부 출석도장을 받기 위해 부모님을 따라 기도회에 참석했다. 북한의 상황을 자세히 알고 계시는 강명도 교수님과 탈북자의 할머니인 주선에 교수님의 간증과 말씀을 들으며, 북한과 탈북자들에 대해 더 알

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북한과 통일을 제목으로 기도하게 하시는가 하는 의문도 생겼다. 남북통일의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설교자들의 말씀을 들으며, 내 앞에 놓인 당장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들었고, 내 고민과 욕심을 내려놓게 되었다. 신년새벽기도회는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을 되새기며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다. **송현서** 고등부

특별새벽기도회

신년 새벽, 청년의 기도회



1월 4일부터 8일까지 오전 6시 45분부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로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매일 20여명의 청년들이 사랑나무실에 모여 정재상 목사님의 호세아 말씀

설교로 영의 양식을, 부장단 권사님들이 준비해주신 아침으로 육의 양식을 공급 받았습니다. 호세아 말씀을 통해 우리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기도하니 하나님과 더 애뜻한 관계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기도에 열정적인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김지윤** 청년부

> 1면에서

환경이 아닌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무력이 아닌 십자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립이 아닌 화해와 용서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 걸음을 내딛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지난 날 수 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마침내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한 순간에 종교의 기둥들이 무너졌으며, 거대한 제국이 무너졌으며 죽음의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그 흐름을 바라보면서 일어날 용기를 갖습니다. 마치 여러 고성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과도 같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 앞에서 절망했을 것입니다. 천겹 만겹 쌓여진 여리고 피라밋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포기만이 이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믿음의 대오를 짜고, 제사장을 앞세우고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성을 받치고 있는 힘은 돌이나 무력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라는 뜻입니다. 저 성이 무너지기 위해선 영적 세력이 무너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코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일곱째 날, 한 순간에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에 우리도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만이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박원호** 담임목사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83

聖物(성물)의 材料(재료)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께 속에 들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출애굽기 25장 16~17)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출애굽기 25장 22)

材料(재료)의 種類(종류)

해달 피. 조각 목. 금과 은. 놋쇠. 등유. 관유. 향료. 향유. 감람유. 몰 약. 계피.

창포. 판결홍패. 증거 판. 기념보석. 관패. 세마포. 무교병. 과자전병 등이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材(재목재. 감재): 나무 및 식물의 대표인 木(나무 목)과 손재주의 뜻이 있는 才(재주 재. 재방 변)의 합자로 '나무를 베어 재주껏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바탕이 재목이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料(헤아릴 료. 감 료): 쌀이나 곡식을 상징하는 米(쌀 미)와 용량의 단위인 斗(말 두)의 합자로 '쌀을 말로 되질하면서 헤아린다. 이처럼 헤아려 밥 지을 감으로 삼는다'라는 의

미가 되었다.

★種(씨 종. 심을 종): 벼 또는 곡식의 총칭인 禾(벼 화)에 무게 또는 거듭함의 뜻이 있는 重(무거울 중. 거듭할 중)을 결합하여 '곡식 중에서 무겁고 튼튼한 것을 골라 심으니 씨앗이다'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類(무리 류. 닮을 류): 쌀이나 곡식을 상징하는 米(쌀 미)에 개 또는 짐승의 대표인 犬(개 견)과 頁(머리 혈)을 결합한 類(닮을 퇴)의 합자로 '쌀 알처럼 작고 닮은 것끼리 모였으니 무리이다'라는 글자가 되었다.

함줄함울

섬기는 손 27



27년을 새벽 6시부터 교우들에게 주보와 함께 은혜와 정성을 함께 드리는 섬김의 손입니다.

>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 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함줄함울

사랑의 공동체

에바다와 잇딤의 송년예배



2015년 12월 27일 사랑나무실에서 에바다부와 잇딤나무가 함께 모여 성탄 송년예배를 드렸다. 윗놀이와 다트게임으로 함께 어울리는 시간도 보냈다. 서로 다른 장애를 가진 두 공동체가 만나니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함께 하는 시간에는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서로가 가진 불편함은 마음을 나누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람이 서로 다르고 소통에 불편함도 있지만, 그

사이를 단단하게 해주는 것은 그 속에 깃든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앞으로 에바다와 잇딤나무가 서로 사랑하며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교회 장애인팀은 잇딤나무(지체장애우팀)와 에바다(청각장애인)가 있으며, 에바다는 주일에 수화 예배를 드린다. **장애인팀 송바울 전도사**

모자생활시설 애란원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교회 성도님들께

지난 11월 주님의교회 사역박람회에 애란원을 초청하여 홍보의 자리를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후 12월 22일에는 교회 미술팀의 미술소품 판매금과 교회 지원금을 전달 받았습니다. 애란원이 가장 어려운 때 주신 이 후원금은 저희들에게 어느 때보다 큰 감사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저희 경험으로 미혼모를 위한 후원에 교회 성도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는데,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애란원은 1960년 반애란 선교사님에 의해 설립되어 올해로 55년이 된 우리나라 최초의 미혼모자시설입니다. 애란원은 미혼모들이 안전하게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자신의 아이를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임신을 하였으나 오히려 이로 인해 인생의 긍정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고졸이상의 학교 교육과 직업교육, 취업, 주택마련 등의 자립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강영실** 애란원장



겨자씨

주님의교회 겨자씨 전서

겨자씨에게 보내는 신년카드

1 주님의교회 영평회 소속으로 부름 받은 나 엄 바울은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인 4교구18구역 식구들에게 새해를 맞아 인사를 전합니다. (註 영평회는 영원한 평신도 협의회의 약자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평신도 숫자가 잘 유지되도록 힘쓰는 교회 내 비밀조직을 일컫음) 2 먼저 겨자씨 모임을 이끄셨던 박 아굴라님께 문안합니다. 3 많은 것에 중에도 저희 겨자씨 식구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4 처음 만나 기도제목 나누는 시간에 그것을 일일이 수첩에 꼼꼼히 적으시는 모습을 뵈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5 우리가 함께 나누는 기도제목들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바로 이런 신실한 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6 김 브리스길라님께도 안부를 전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에서 부부사역의 대명사로 늘 칭송되고 있습니다. 7 브리스길라가 여성임에도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부부사역의 중심이 부인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두 분의 모습에서 그 이유를

능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8 앞으로 주님의 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명성을 이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9 (없음) 10 황바나바님 장로피택을 감축 드리웁니다. 그 동안 법률상담과 하나원 방문 그리고 오랫동안 고등부교사로 헌신하셨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셨으며 때가 차매 바나바님을 교회의 큰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저희는 압니다. 11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이름 뜻대로 우리 교회에서도 권위자(勸慰子)의 역할을 잘 해주시라 굳게 믿으며 기도합니다. 12 엄 뽀뽀님께서는 우리에게 관대함이 무엇인가를 몸과 마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13 예배할 처소를 준비해주시고 정성스러운 먹을거리로 배를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14 엄 뽀뽀님의 선행을 볼 때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가 떠오릅니다. 15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결코 지나치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 아낌없이 사용하시니 말입니다. 16 뽀뽀가 바울의 보호자가 된 것처럼 앞으로도

엄 뽀뽀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며 바울이 로마교인들에게 당부한 것처럼 엄 뽀뽀님께서 이 세상 어딜 가든지 모든 이들에게 환대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저 역시 기도하겠습니다. 17 늘 반듯한 모습으로 저희 모임에 활기를 불어넣어주셨던 김 디모데님 사정으로 다른 교회로 옮기셨지만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의 사랑거리가 될 거라 굳게 믿습니다. 아멘! 18 이제 주일 찬양대에서 신 모습도 보지 못하고 겨자씨 모임에서 일목요연한 견해를 들을 기회는 없어졌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성숙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19 그동안 고삼 아이들 가르치시느라 애 쓰신 이 에바브라님 지금은 방학의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시고 계시겠군요. 진심 부럽습니다. 20 에바브라님을 떠나보내고 제일 아쉬운 것은 아마도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편 되시는 김 디모데님께서도 그 웃음에 반하셨을 테지요. 21 행복은 향수와 같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먼저 뿌

리지 않고 남에게 발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하니 남편과 아이들만 챙기지 마시고 먼저 자신의 행복을 챙기시기를 권면합니다. 22 이제 안부를 전할 겨자씨 식구는 윤 마리 아님 한분이 남았네요.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23 사랑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네 근에서 여섯 근이라고 합니다. (註 근은 무게를 재는 단위로 한 근은 0.6Kg에 해당함) 24 사랑하게 되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거나 혹은 두근반 세근반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25 마리아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어찌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26 하나님의 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바로 마리아님을 나의 아내로 주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27 끝으로 주일마다 무심코 지나치면서 살갑게 인사드리지 못하는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마음을 담아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2016년 내내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엄인호** 집사

신임교역자 소개

새 사역자를 소개합니다

2016년 새해를 맞아 주님의교회에 11분의 귀한 일꾼들이 오셨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허준 목사 / 통일선교

올해의 교회 표어 “그들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라는 문구를 접할 때마다 가슴에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함께 이와 같은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찢겨진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헌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배 교육전도사 / 영어예배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감사를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유년시절을 부모님을 따라 선교지에서 자라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향한 마음과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이 그 비전을 따라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데 충성하려고 합니다.



류주영 교육전도사 / 중등부

중등부 아이들이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고백하고 평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편견 없이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살아있는 예배, 소외된 자 없이 모두가 기뻐하는 예배를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박주영 전도사 / 예친사, 새가족부

귀한 교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데 열심과 열매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베푸세요.



송바울 전도사 / 에바다, 싯딤나무

저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잘 알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공동체가 되었으니,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상현 전도사 / 6교구, 7교구

“香木”...뿌리 깊고 향기 나는 나무와 같이, 깊은 신앙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교회에서 함께 꿈꾸며, 함께 달려가길 기대합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안에 평안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성겸 교육전도사 / 초등1부, 어와나 T&T

어릴 적, 많이 들었던 메시지 중 하나는 ‘성공’과 ‘1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음이야기를 말입니다. 복음의 전달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싶습니다.



이용 전도사 / 2교구, 3교구

2교구와 3교구를 목사님들과 함께 섬기게 된 이용 전도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언제나 열심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늘 평안함과 위로함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재설 전도사 / 4교구, 5교구

훌륭하고 건강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갚을 길은 오직 성도님들을 섬기며 더욱 낮아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구 담당 전도사로 불러주신 만큼 섬기는 교구와 세워주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런닝맨’이 되겠습니다.



이태욱 교육전도사 / 10교구(젊은이)

처음으로 전도사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주변 이웃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도님들을 섬기겠습니다. 쓰임받을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주님의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이희성 교육전도사 / 예친사, 12단계 성경공부

현재 장로회 신학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부모님, 누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좋아하고, 영화관람도 좋아합니다. 건강한 교회에서 귀한분들과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목회칼럼

자녀 양육의 원리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자라날 때에 모습을 찾기로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52절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시켜야 할지에 대한 세 가지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원리는 아기가 자라면서 강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사랑스럽습니다. 보기만 해도 예뻐집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의 기쁨과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만약에 자라나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그것처럼 속상하고 답답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되 균형 있게 자라야 합니다. 신체적 건강과 함께 인격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돌보아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기에 부모는 육체적 건강과 함께 인격적 건강도 신경 써야 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지혜가 충족하게 자라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지금 이 땅

녀 위에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건강이 육적인 건강보다 귀합니다. 건강한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육적인 건강이 보호받

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부모님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헬라의 유명한 교육가에게 어떤 사람이 아이를 업고 찾아가서 “언제부터 교육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몇 살 입니까?” “이제 겨우 두 살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 아이는 꼭 2년 늦었습니다.” 이것이 교육가의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참된 교육은 모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태중에 갖기도 전부터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누가는 세례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도록 갈망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가는, 더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아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희삼 목사

아이들은 사는 것을 배웁니다

만일 아이가 나무람 속에서 자라면 싸움을 배웁니다.
만일 아이가 비웃음 속에서 자라면 부끄러움을 배웁니다.
만일 아이가 수치심 속에서 자라면 죄의식을 배웁니다.
만일 아이가 관대함 속에서 자라면 신뢰를 배웁니다.
만일 아이가 격려 속에서 자라면 고마움을 배웁니다.
만일 아이가 공평함 속에서 자라면 정의를 배웁니다.
만일 아이가 보호 속에서 자라면 믿음을 배웁니다.
만일 아이가 인정 속에서 자라면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배웁니다.
만일 아이가 받아들임과 우정 속에서 자라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 도로시 로틀트

을 살아가야 하는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주님이 주신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목적하심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

으려면 영적인 건강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가르치고, 올바른 생활방법, 가치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기에 내 자식이라는 소유 의식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하나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합

정신학원에 잇든 한국 기독교의 역사 26

일제하 미북장로회선교부 교육사업 인퇴(引退)(4)



1918년 정신여학교 제10회 졸업생

제2차 조선교육령 공포

3·1 운동 이후 한민족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친 일제는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식민지 지배를 전환하였다. 일반 관리와 교원의 제복대검(制服帶劍) 폐지, 언론·출판의 제한

적 허용 등과 같은 유화적 조치를 취하였다. 이 같은 시정방침의 기초는 일본 본국의 제도와 법률을 식민지조선에도 연장시켜야 한다는 내지연장주의였다. 그러나 ‘국민된 성격을 함양하고 국어(일본어)를 숙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식민지 동화교육의 기본방침은 제1차 조선교육령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 오히려 한국인 사회의 여론 주도층을 회유하고 친일파를 적극 육성하는 민족분열정책을 꾀한 것이었다. 이것의 일환으로 1920년 3월 사립학교규칙을 개정하여 인가를 받지 않은 사립 각종학교의 교원자격을 완화하고 기독교계 학교에서 성경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920년 11월 제2차 교육령을 공포

하여 4년제였던 보통학교 수업연한을 일본 소학교처럼 6년으로 하고, 고등보통학교도 2년 이내의 보습과(補習科)를 두게 하여 일본 중학교와 균형을 맞추었다. 제2차 교육령 공포 직후 전문학교 규정도 공포하여 보통학교부터 대학까지 학제가 완성되었다.

이 교육령은 일본과 동등하게 학제를 적용하는 등의 면모를 보였지만 조선인 고유의 민족성과 문화를 존중하는 교육은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신문화 건설을 통한 민족의 독립역량이라는 집단적 동기와 사회적 신분 상승이라는 개인적 동기가 일어나 교육열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희천 정신여고 교장

사역팀 소식

주차안내부 봉사지침서 발간

주차안내부에서는 지난 해 12월 30일 주차안내부 교육을 위한 봉사지침서를 편찬했다. 총 263면, 주차안내부 사업계획, 지침과 서식, 사건 사례, 교육용 교안과 자료 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인더 형태로 제작했다. 총 25부를 제작, 주차안내부실에 두고 부원 교육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함즐함울**

아기나들이



하현재 아기

2015년 7월 18일생

1. 현재가 마음이 따뜻하고 지혜로운 자녀되게 해주세요
 2.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한 자녀되게 해주세요
 3. 무엇보다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 아빠 하승범 / 엄마 유경화, 2015년 12월 27일 3부 예배

2016년 함즐함울, 지금 만나러 갑니다

2016년을 맞은 <함즐함울>이 다채로운 기획 기사와 함께 놀라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가짐부터, 반짝거리는 아이디어가 가득한 공동체의 제언, 그리고 깜찍한 카툰이 주님의교회 성도들의 눈과 마음을 새롭게 해 드릴 것입니다.

• 통일을 위한 디딤돌

올해 교회 표어인 통일에 대해 좀더 깊이 생각하는 난을 마련합니다. 남북한의 차이, 언어, 문화, 종교, 스포츠 등 다양한 필자의 글을 수록할 예정입니다.

• 함즐함울 캠페인 :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구호만 요란하고 실천이 부족한 우리, 이웃은 누구,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안 하는지, 우성아파트, 정신학원 등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새삼스러운 우리의 일상을 돌이켜봅니다.

• 열린 마당

주님의교회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재미있고 열린 형태로 수록합니다. 주님의교회가 좀더 나아질 수 있는 촌철살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카툰, 카툰 !

바야흐로 비주얼의 시대! 깜찍한 캐릭터가 교회 안팎에서 느끼는 일화들을 카툰으로 보여드립니다.

• 성경 바로 읽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기획기사입니다. 셸리 맥페이그의 <은유신학>을 흥미로운 예화를 중심으로 풀어봅니다.

2016년 한해, 주님의교회 공동체의 많은 성원 기대합니다. **함즐함울**

‘배달의 함즐’ 오늘 신청하세요

주님의교회 신문 <함즐함울>을 꼭 보여드리고 싶은 분이 있다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함즐함울을 보내드립니다. 받을 분 주소와 부수를 hamletter@daum.net으로 알려주세요

신앙상담 ☎ 02-416-5183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구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섬김과 나눔 소식

정신여고 사랑의 목도리 전달식



2015년 12월 22일 교회 1층 로비에서는 정신여고 1학년 학생들이 뜬 사랑의 목도리가 섬김과 나눔 축으로 전달되었다. 이에 앞서 13일에는 정신여고와 주님의교회가 사랑나눔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함즐함울**

교회단신

2015 성탄절 기념음악회



지난 12월 23일 주님의교회 대예배실에서 성탄절 칸타타 ‘사랑의 왕’이 열렸다. 시온찬양대가 주관하고 주오오케스트라가 협연하여 거룩한 성, 거룩한 밤 등의 레퍼토리를 가지고 아름다운 찬양의 밤이 되었다. **함즐함울**

2015년 12월 25일 유아세례식

강승훈, 국형근, 김서영, 김세혁, 김태준, 박지후, 서소율, 석주영, 송예준, 송지유, 송하준, 안지민, 오민준, 오혜련, 유소은, 유재윤, 유재훈, 윤명, 윤세인, 윤예은, 이라운, 이상윤, 이시온, 이제우, 이지유, 임정민, 전예환, 전재현, 전호연, 정다엘, 정은후, 조원, 조하율, 조하준, 최현진, 하준, 한서영

알립니다

1. 2016 표어

그들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출 5:3)

2. 2016년 신임 서리집사 명단 및 교육

대상 : 만30세이상, 등록 및 세례(입교)후 1년

교육 : 1.17, 24 주일(2회) 오후 2:00~3:00 소예배실(1층)

* 교육에 꼭 참여하셔야 서리집사에 임명됩니다.

3.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발급안내

일시 : 2016.1.13(수)~

* 교적의 핸드폰 번호가 다른 경우 본인 인증이 되지 않으니 1.3~1.10까지 사무실로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2016년 새벽기도 헌신자 모집

내용 : 1년간 사명감을 가지고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여 기도하는 사역

신청 : 본당 로비

문의 : 손영익 안수집사(010-2287-9285)

5. 2016년 교구목사 변동

1교구 : 장수현 목사 2교구 : 김정형 목사 3교구 : 김대환 목사

4교구 : 이은석 전도사 5교구 : 최방은 목사 6교구 : 심홍섭 목사

7교구 : 김용웅 목사 8교구 : 홍성욱 목사 9교구 : 정창화 목사

10교구(젊은이) : 문학삼 목사

6. 제직수련회 : 1.24(주일) 오후 4:00 대예배실

* 대상 :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교사, 찬양대, 지휘자

7. 10교구(젊은이) 명칭 변경

① 2030부부교구에서 10교구(젊은이)

② 겨자씨 모임(3월부터) 및 장소 : 주일 오후 1:00~2:30 / 수련실(2층)

③ 문의: 문학삼 목사(010.4305.1849)